

韓國人の 價値觀 研究에 대한 考察

— 價値領域別로 본 集團間 價値觀의 差異를 中心으로 —

金 錫 俊* 李 泰 遠**

目 次

I. 序 論	1. 政治的 價値觀
II. 價値의 概念定義 및 分析의 틀	2. 經濟的 價値觀
1. 價値의 概念과 特性	3. 社會的 價値觀
2. 價値分析의 틀	IV. 要約 및 結論
3. 研究의 範圍와 限界	
III. 價値領域別로 본 集團間 價値觀의 差異	

I. 序 論

價値가 經驗科學의 研究대상으로 취급된 이후 諸社會科學에 있어서 중심적 지위를 점유할 수 있게된 이유는 다른 어떤 概念보다도 인간행동에 關聯된 모든 분야의 다양한 關心을 통합시킬 수 있는 媒介變數가 되기 때문이다.¹⁾ 특히 사회학적 觀點에서 價値를 經驗적으로 研究하는 이유는 그것이 行爲의 基準을 제공하여 주며,²⁾ 自身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게 해주는 방법을 제시해 줄 뿐만아니라, 스스로의 行爲와 다른 사람의 行爲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價値는 思考와 行爲를 合理化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⁴⁾

이와같이 여러가지 機能을 수행하는 價値는 환경과 문화, 그리고 社會構造에 있어서의 개인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個人的 經驗을 통하여 학습되며, 일단 퍼스낼리티의 構成要素로서 內在化된 價値는 어느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개인의 行爲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개인들의 社會構造內에서의 地位와 퍼스낼리티의 구성요소로서의 價値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은 價値의 특성때문에 가치는 사회구조와의 관계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近代化로 요약될 수 있는 지난 한세기 동안의 韓國社會變動은 중요한 사회 구조적 變動을 가

*社會科學大學 **江原大學校

1) Milton Rokeach, (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 Free Press, New York, p. 3.

2) Norman T. Feather, (1975) *Value in Education and Society*, Free Press,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 New York, p. 8.

3)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ibid. p. 8에서 再引用.

4) Norman, T. Feather, op. cit. p. 8.

져왔다.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정치구조의 민주화, 경제구조의 산업화, 생태구조의 都市化, 階層構造의 平等化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一般的 定向을 지닌 광범하고도 중요한 社會 構造의 變動이었다.⁵⁾ 그러나 이러한 사회변동은 첫째, 外來文化에 대한 상당히 폐쇄적이었던 상황에서 外勢에 의한 開國으로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으며 둘째, 植民支配로 인한 近代化의 歪曲과 空白이 있었고 셋째, 해방후 政治的, 經濟的 變化의 속도가 매우 급속했다는 점등의 특성을 지닌다. 이와같은 특성은 가치갈등과 가치체계의 혼란을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시켜 놓았다.⁶⁾

「전통성과 근대성이 混在하는 文化的 二重構造」라든가 「非同時的인 것의 同時的 存在」라는 말들로 표현되는 以上과 같은 韓國社會構造의 變動은 어떤 價値도 共通價値(Common Value)나 支配的 價値(dominant Value)로 받아들일 수 없게하거나 여러가지 價値가 동시에 正當性을 갖게 하므로서 사회성원들로 하여금 價値選擇이나 價値志向에 혼란을 겪게하고 있다.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社會成員間의 협동을 가능하게하는 共通的인 文化와 균형있는 價値觀의 役割이 절실하게 요청된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韓國社會는 전통적으로 維持되어 온 朝鮮朝時代의 儒敎的 價値觀과, 현대 서구사회의 合理的 思考方式 및 行動方式이 우리 사회성원들에게 동시 지지될 때 各 個人은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기 곤란하여 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各 個人은 그때그때의 狀況이나 여건에 따라서 편리하거나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선택하므로서 一貫性있는 行爲志向을 보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위의 예측성은 더욱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 E. Durkheim의 “아노미”란 바로 이런 상태를 지칭한다.

本 研究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한국사회변동의 결과인 가치관의 갈등현상을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치갈등의 양상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개인들이 사회구조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기회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集團間의 價値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동일한 집단이나 개인들이 價値영역에 따라 非同時代的인 가치들을 수용하므로서 발생하는 가치갈등이다. 전자에 속하는 가치갈등은 세대별, 지역별, 남녀별, 성별, 직업별, 교육정도별, 그리고 계층별 가치갈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가치갈등으로는, 정치가치관, 경제가치관, 사회가치관 등의 가치영역들의 비동시적 차원의 것이 동일한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내면화되는 경우이다. 예를들어 한 개인이 정치적으로는 전통적 가치지향을 보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근대적 가치지향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복잡한 가치갈등의 양상을 이 좁은 지면을 통하여 모두 취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치의 영역을 정치가치관, 경제가치관, 사회가치관 세 영역으로 나누고, 이것이 사회집단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선정된 사회집단으로는, 계층집단, 남녀집단, 직업집단 등 세 집단이며, 각 영역의 가치관은 전통성과 근대성이라는 두 次元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5) 林禧燮, (1980) “韓國社會의 構造變化”, 韓國社會科學研究所編, 韓國社會論, p. 256.

6) 林禧燮, (1980) “現代韓國社會에 있어서의 價値志向의 變化와 適應에 관한 연구”,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韓國의 社會와 文化 3輯, p. 187.

7) K. Davis, (1947) *Human Society*, New York, The Macmillan Co., p. 114.

II. 價値의 概念定義 및 分析의 틀

1. 價値의 概念과 特性

價値는 그것이 가진 속성이 다양하며 적용범위가 넓은 까닭에 다양하게 定義되고 分類된다. 一般的인 觀點에서 Kluckhohn은 行爲의 利用可能한 諸目標, 手段 및 樣式의 選擇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이하게 소유하고 있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明示的, 默示的 概念이라고 定義한 바 있으며⁸⁾, Rokeach는 價値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行動樣式이나 存在에 대한 目的狀態에 선호되는 지속적인 믿음이라고 定義하고 있다⁹⁾. 이러한 價値는 經驗科學속에서 인간의 行爲를 결정하는 變數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性을 가진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價値는 우선 선택적(selective)이고 선호적(preferential) 관심의 表現이라는 사실이다¹⁰⁾. 그러나 단순한 選好나 選擇이 아닌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評價的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¹¹⁾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價値를 배열할 수 있는 序列性의 特性을 지닌다¹²⁾. 따라서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행위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價値는 自己選擇의 合理的 決定要因으로서 기여한다¹³⁾

다음 價値는 意識으로서 世界에 대한 믿음이나 信念體系를 반영하는 것으로서¹⁴⁾ 明示的이거나(이미 言語로 표현된), 혹은 暗示的인(은밀한 행위로부터 추론되는) 것이다. 이 때의 믿음 역시 評價的이고 感情的이며, 規制的인 것으로 目標과 手段에 대한 判斷基準이 된다¹⁵⁾.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생각되는 믿음은 종종 感情的으로 中立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價値는 中立

8) C. Kluckhohn and Others, (1951) "The Value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in T. Parsons and A. Shils(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p. 395.

9) M. Rokeach, op. cit. p. 5.

10) K. Baier, (1971) "what is value: An Analysis of the Concept", in K. Baier and N. Rescher (eds.), *Value and the Future*, New York, Free Press, p. 33.

C. Morris, (1956) *Varieties of Human Valu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pp. 10-11.

V. L. Bengtson and M. C. Lovejory, (1973) "Value, Personality and Social Structure: An Intergeneralizational Analysis", i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16, No. 5, July/August, p. 182.

R. M. Williams Jr., (1974) "The Concept of Value",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 16, New York, The Macmillan Co., p. 283.

N. T. Feather, op. cit. pp. 4-5.

C. Kluckhohn and Others, op. cit. p. 396, p. 422.

11) V. L. Bengtson and M. C. Lovejory, op. cit. p. 880.

12) Ibid., p. 882.

N. T. Feather, op. cit., p. 4.

13) Kurt Baier, op. cit., p. 4.

14) N. T. Feather, op. cit., p. 4.

M. Rokeach, op. cit., p. 5.

C. Kluckhohn and Others, op. cit., p. 395.

15) ibid. p. 395.

的인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의 感情(feeling)을 포함하고 있다.

세째로, 價値는 지속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이다¹⁶⁾. 價値가 생애를 통하여 변화한다는 점에서 비록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존재나 사회적인 존재에 대하여 一貫性을 제공한다는 것은 價値의 안정적인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는 결국 가치체계의 일부로 組織됨으로서 行爲體系를 조직하는 기준이나 규범을 암시하게 된다.

네째로, 가치는 當爲的인 특성(the "ought" Character)을 가진 것으로¹⁷⁾ 個人의 行動에 있어 道德性이나 義務를 포함하게 된다. 價値에 대한 다양한 논의속에서도 유일한 일반적인 합의는 價値는 어떠한 存在論的인 命題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規範的인 屬性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치와 態度는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Allport 가 언급한 바와같이 態度(attitude)는 經驗을 통하여 組織되고, 관련된 모든 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反應에 대하여 직접적이거나 혹은 動的인 영향을 행사하는(a directive or dynamic influence) 정신적·신경적 준비상태(a mental and neural state of readiness)를 말한다. 그러나 價値와의 중요한 차이는 態度가 a) 개인에 대한 排地的 귀속성(referability)을 가진다는 것과 b) 바람직한 것이 附加되지 않은 점에 있다¹⁸⁾.

다섯째, 가치는 內在的인 것이 아니라 測定할 수 있고, 觀察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표명이라는 사실이다.¹⁹⁾ 즉 가치는 특정상황을 초월하는 궁극적 인지로서, 비록 觀念的으로 재구성된 抽象的인 概念이라고는 하지만 첫째, 피조사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평가적 진술과(이 경우 선택이나 선호도에 대한 진술과 행동에 대한 관찰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사건에 대한 선택과 선호를 암시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명백한 行爲(overt action)로부터 관찰자의 추론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²⁰⁾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살펴 볼 때 측정가능한 경험적 변수로서의 가치는 규범적 속성을 갖는 평가적 궁극적 인지로서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주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행위의 설명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또한 가치는 한 사회의 文化體系의 일부로서 社會化를 통하여 개인의 퍼스널리티속에 내면화되고 사회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와 가치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주어진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2. 價値分析의 틀

價値의 개념 및 특성과 함께 일반적으로 가치를 연구함에 있어서 分析方法上的의 몇가지 전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價値와 社會構造와의 相互關係의 문제이다. 많은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는 그러한 關聯性은 대체로 두 가지 상반된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한 사회성원의 態度 및

16) *ibid.*, p. 4.

C. Kluckhohn and Others, *op. cit.*, p. 395.

17) N. T. Feather, *op. cit.*, p. 4.

C. Kluckhohn and Others, *op. cit.*, p. 395.

18) *ibid.*, p. 423.

19) M. Toffler, "Value Impact Forecaster; A Profession of the Future", in K. Baire and N. Rescher (eds.), *op. cit.*, p. 5.

20) C. Kluckhohn and Others, *op. cit.*, p. 424.

價値를 獨立變數로 보고 사회구조를 從屬變數로 보는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구조를 獨立變數로 보고 態度나 價値를 從屬變數로 보는 입장이다.²¹⁾ 前者의 대표적인 例로는 M. Weber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精神”을 들 수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宗教(價値)가 資本主義成立과 選擇的 親和力(Selective affinity)를 갖는다고 주장하므로서 가치를 獨立變數로 보고 사회구조를 從屬變數로 보았다. 반면, 後者의 立場에 서는 것으로서 우리는 知識社會學을 생각할 수 있다. K. Marx는 下部構造(社會構造)가 上部構造(價値)를 조건지운다고 주장하였으며, Marx의 뒤로 이어 K. Mannheim은 思惟의 存在에 의한 拘束性(Seinverbundenheit des Denkens)를 주장한다.

그러나 知識社會學의 성립과 社會心理學의 발달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사회구조를 獨立變數로, 價値를 媒介變數로, 行爲를 從屬變數로 취급하는데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²²⁾ 본 연구는 後者의 입장에서서 집단간의 가치 갈등의 양상을 밝히려 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변동의 특성과 관련시켜 볼 때, 우리사회의 各 成員들은 그들의 社會的 位置의 차이로 인하여, 상이한 가치관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가정된다. 가치관의 차이는 행위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불가피하기 마련이다.

둘째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價値體系(Value System)는 여러가지 부문들의 價値項目의 復合體라는 사실이다. 價値觀의 연구가 價値體系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經驗的 水準에서 價値를 분석함에 있어서 價値의 分類는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가치의 다양한 속성으로 인하여 보편적인 분류가 힘든 것도 또한 사실이다. 예를들어 Morris는 價値를 作用價値(operative value), 觀念的 價値(conceived value), 그리고 對象價値(object value)로 나누었으며,²³⁾ Rokeach는 道具的 價値(instrumental value)와 窮極的 價値(terminal value)로 구분하였다.²⁴⁾ 또한 Kluckhohn은 價値의 次元에 따라 一般性的 次元(generality dimension), 集中性的 次元(intensity dimension), 明確性的 次元(explicitness dimension) 範圍의 次元(extent dimension), 그리고 組織性的 次元(organization dimension)으로 分類한 바 있다.²⁵⁾ 특히 Spranger는 理論的, 經濟的, 審美的, 社會的, 政治的, 그리고 宗教的 價値로 구분하였다.²⁶⁾ 이 이외에도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많은 種類의 價値區分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의 가치갈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치를 經濟的 價値觀, 政治的 價値觀, 社會的 價値觀으로 구분하였다.

3. 研究의 範圍와 限界

이상에서 논의한 價値의 정의 및 특성 그리고 分析의 틀을 토대로 해방후 한국사회의 가치갈등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때문에 연구상의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21) 崔弘基, (1971) “産業化過程에 따른 態度와 價値의 變化”, 서울대敎養學部論文集, p. 376.

N. T. Feather, op. cit., p. 68.

22) C. Morris, op. cit., p. 68.

23) C. Morris, op. cit., pp. 10~12.

24) M. Rokeach, op. cit., pp. 7~12.

25) C. Kluckhohn and Others, op. cit., pp. 412~421.

26) ibid, p. 411에서 재인용.

첫째, 價値갈등에 대한 개념적 정의의 문제이다. 주어진 사회속에 살고있는 개인들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과 사회화의 차이로 인하여 成員들간에 어느정도의 상이한 가치관이 存在한다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행위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상이한 가치관에 의하여 안내된 각 행위들이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갈등적 상황을 만들어 낼 때, 상이한 가치는 차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가치갈등의 상황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가치관의 연구에 대한 거의 모든 경험적 조사들은 가치갈등 보다는 가치관의 차이 내지는 존재상태에 관한 연구라는 사실이다.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을 토대로 하는 본 연구도 이러한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둘째, 가치관과 態度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퍼스낼리티의 하위차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개념적으로는 엄연히 구별된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태도조사와 가치관 연구를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는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²⁷⁾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취사선택 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기존의 대부분의 가치관 연구들은 집단간의 가치관의 차이나 갈등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同一집단의 가치관의 양상을 단지 사실적으로 記述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집단간의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나아가서 어떤 부분은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는 반면,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는 자료가 매우 빈약하다. 이러한 제약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가치의 영역을 정치가치관, 경제가치관, 사회가치관으로 나누고, 각 가치 영역별로 집단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III. 價値領域別로 본 集團間 價値觀의 差異

1. 政治的 價値觀

정치적 가치관에 대한 연구는 홍승직의 연구와²⁸⁾ 이영호의 연구가²⁹⁾ 있다. 홍승직은 두번의 예비조사를 한 후 1964년 9월과 10월에 걸쳐, 농민 352명, 기업인 261명, 교수 39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가 고찰한 정치적 가치관의 지표들은 A. 官尊民卑觀, B. 自由統制觀, C. 近代化 失敗觀, D. 天災觀, E. 對美國觀, F. 關心領域觀, G. 大學生 活動觀, H 指導者觀, I. 民主主義發展·展望觀 등 아홉가지였다. 현편 이영호는 정치적 가치관이란 제목을 달지는 않았지만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A. 공산권을 보는 눈 B. 중공을 어떻게 보나 C. 北傀에의 불신 D. 美國과 日本을 보는 눈 E. 民主主義의 뜻 F. 民主政治에서의 여론 타협 신념, G. 民主政治와 批判精神 등 일곱가지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가 조사한 대상은 국회의원과 일반국민 이었다.³⁰⁾

본 연구에서는 홍승직의 官尊民卑觀, 對美國觀, 指導者觀을, 이영호의 미국과 일본을 보는 눈, 민주주의의 뜻등을 참고로 하였다.

A. 官尊民卑觀

朝鮮朝 時代이래 現代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이 소위 감투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한가는

27) 盧昌燮, (1964) "韓國都市人的 價値觀", 梨大韓國文化研究院, 論叢, 5輯,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음.

28) 洪承稷, (1969) 韓國人的 價値觀 研究,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pp. 111~126.

29) 李永鎬, (1977) 韓國人的 價値觀, 서울, 一志社, pp. 74~117.

30) 李永鎬는 「韓國人的 價値觀」에서 표본의 크기나 표출방법 등, 조사방법에 대한 것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음.

이미 널리 알려져 온 사실이다.³¹⁾ 홍승직은³²⁾ 이러한 官尊民卑觀을 측정하기 위하여 「월급, 장애성, 기타면에서 모든 조건이 같은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있는데 맥의 아드님이 (없으면 있다고 가정하고) 취직을 하려 한다면, 어느기관에 취직하기를 권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官尊民卑觀

人層	應答	정부기관	민간기관	기 타	무응답	計	N
農 民		82.39	17.61	0.00	0.00	100.00	352
企 業 人		35.57	67.05	0.00	0.00	100.00	261
教 授		32.14	65.05	0.77	2.04	100.00	392

자료: 洪承稷, (1969) p. 113.

농민층은 82.39%가 민간기관 보다는 정부기관을 택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기업인과 교수는 35.57% 및 32.14%만이 각각 정부기관을 택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다시말하면 농민과 도시민(기업인 및 교수) 사이에는 官尊民卑의 태도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전통에서 아직 크게 탈피하고 있지 못한 농촌에서는 李朝이래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작용하여온 官尊民卑의 태도가 상당히 殘存하고 있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면 農民에 비하여 近代化했다고 볼 수 있는 都市居住者로서의 교수와 기업인의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양인구층의 약 1/3이 정부기관을 그리고 2/3가 민간기관을 각각 택하고 있음은 확실히 농민보다는 관존민비의 태도에 있어서 弱화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韓國的 現實로 볼 때 공무원의 처우가 민간기업체의 종사자보다 몹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교수 및 기업인의 1/3이 정부기관을 택하고 있음은 이들도 官職을 民間職보다 높이 보려는 傾向이 적지 않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B. 對美國觀

對美國觀을 알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³³⁾ 「8·15이후 우리나라는 美國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이는 좋은 것을 더 많이 배웠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나쁜 것을 더 많이 배웠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좋은 것, 나쁜 것 반반씩 배웠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은 <표 2>에 分析되어 있다.

<표 2>

對美國觀

人層	應答	좋은것을 더 많이 배웠다.	나쁜것을 더 많이 배웠다.	좋은것 나쁜것 반반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計	N
農 民		36.93	11.94	31.53	19.60	0.00	100.00	352
企 業 人		24.90	8.43	63.22	2.68	0.77	100.00	261
教 授		17.35	16.84	59.44	5.36	1.01	100.00	392

자료: 洪承稷, (1969) p. 118.

31) 崔在錫, (1965) 韓國人的 社會的 性格, 民潮社, pp. 51~65.

32) 洪承稷, op. cit., pp. 112~113.

33) 洪承稷, ibid., pp. 117~119.

국 사회에서 腐敗가 경시될 정도로 묵인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示唆해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직하고 공정한 지도자가 나와서 부정부패를 일소해 주었으면 하는 응답자들의 念願의 發露인 것이다.

D. 미국과 일본을 보는 눈³⁵⁾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 질문은 “「우리 외교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과의 유대 강화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分析結果는 <표 4>와 같다.

<표 4> 「우리 外交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美國과의 유대 強化에 最大의 勞力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數字는 %)

응답자구분	전적찬성	대체로 찬성	찬성 반대 도 아님	대체로 반대	전적반대	무응답	
일반국민 (전체)	31	26	8	22	9	4	
국회의원 (전체)	56	35	5	3	1	1	
국 민	호남사람	30	24	7	24	10	4
	영남사람	30	32	9	20	7	3
호 남	도시사람	28	26	10	29	6	3
	농촌사람	35	22	3	16	19	6
영 남	도시사람	27	35	8	19	8	3
	농촌사람	37	22	12	24	4	2
국회의원	공 화	55	36	7	2	0	0
	신 민	57	35	2	3	2	2
공화의원	50세미만	40	44	12	4	0	0
	50세이상	76	24	0	0	0	0
신민의원	50세미만	53	39	3	3	3	0
	50세이상	63	30	0	4	0	4

자료: 李永鎬, (1977) p. 93.

「우리 외교는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미국과의 유대 강화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 국민의 57%와 국회의원의 91%가 贊意를 表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옳지 않다고 본 비율은 일반국민의 경우 31%였고 국회의원의 경우는 4%밖에 되지 않았다.

질문을 잘 검토해보면 한국은 對美外交를 그 어느나라의 외교보다도 중요해야 하며, 따라서 미국을 한국의 <第1友邦視> 해야 한다는 뜻이 있다. 여기에 한국 국회의원들은 거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표시를 보냈고 일반 국민의 경우는 거의 2:1로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였다. 이것은 앞의 흥승직 연구와 관련시켜 볼 때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對日本觀을 알기 위하여 한 질문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였다. 이에 대한 分析結果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35) 李永鎬, op. cit., pp. 93~98.

〈표 5〉 「우리나라가 日本과 經濟的으로 政治的으로 軍事的으로 너무 가까와지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응답자구분	응답구분	전적찬성	대체로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님	대체로 반대	전적반대	무응답
일반국민 (전체)		21	28	10	27	9	4
국회의원 (전체)		20	42	4	30	3	1
국 민	호남사람	18	23	12	35	8	4
	영남사람	23	35	7	21	11	3
호 남	도시사람	14	27	9	41	8	1
	농촌사람	28	15	17	22	10	9
영 남	도시사람	27	32	8	19	12	2
	농촌사람	12	45	6	25	6	6
국회의원	공 화	7	38	7	43	5	0
	신 민	35	48	0	14	2	2
공화의원	50세미만	8	36	12	44	0	0
	50세이상	6	41	0	41	12	0
신민의원	50세미만	36	50	0	14	0	0
	50세이상	33	44	0	15	4	4

자료 : 李永鎬, (1977) p. 96.

일반국민의 경우는 일본과 <너무 가까와지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 비율이 49%였고 일본과의 밀접한 관계도 무방하다고 본 비율은 36%였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일본과의 밀접한 관계를 좋지 못하다고 본 의원이 62%에, 일본과의 밀착을 무방하다고 본 의원이 33%였다. 이것은 일본에 대한 불신이 일반국민보다 국회의원 가운데 더 강하다는 풀이를 할 수 있다. 아물든 일반국민의 경우나 국회의원의 경우를 막론하고 일본에 대한 태도가 상당한 分裂을 보이고 있다.

E. 민주주의의 뜻³⁶⁾

단어연상법에 의하여 민주주의란 어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國民이 본 민주주의의 뜻

민 주 주 의 의 뜻	應答分布 (%)
1. 자유, 기본권, 개성존중	56.2
2. 多數決, 代議政治, 自治	30.8
3. 平等, 세습적 계급 없음	9.3
4. 法治主義, 合憲主義	0.6
5. 資本主義, 私有財產	0.4
6. 기타	10.1
계 (한 사람이 한 개 이상의 응답을 할 수 있었음)	107.4

자료 : 李永鎬, (1965) 韓國의 政治文化 調查研究

36) 李永鎬, op. cit., pp. 99~104.

<표 6>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경우 全體聯想의 56.2%가 자유의 의미를 가진 말들이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보고 여러가지 (평균 3가지나 4가지) 연상을 하는 가운데 <자유>나 그 비슷한 뜻을 가진 연상을 한 비율은 지극히 높았다. 일반국민의 경우 80%가 <자유>나 그 비슷한 말(예를들어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거주 자유, 자유 보장 등)을 연상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그 비율이 무려 97%에 이르렀다. 그래서 한국인에게는 <민주주의는 곧 자유>라는 뜻이 있다고 하겠다.

2. 經濟的 價値觀

경제적 가치관을 측정하는 주요자료로 사용된 것들로는 職業觀, 경제적 향상과 소비, 취업, 분배의식, 근대화관, 기업관, 고용관, 재산관, 금전사용관 등 다양하다.³⁷⁾ 특히 최근의 한 연구는³⁸⁾ 경제가치관을 전통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으로 나누어 전통적 가치관으로 운명지향성, 情誼的 道德志向性, 學德志向性을, 근대적 가치관으로서 改革的 成功志向性, 誇示的 拜金主義, 合理的 內部志向性 등을 지표로 分析한 바 있다.

本論에서는 경제가치관을 측정할 수 있는 이상과 같은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 A. 직업관(내지 취업관), B. 근대화관 C. 전통적 경제가치관과 근대적 경제가치관을 살펴 보기로 한다.

A. 職業觀

홍승직은³⁹⁾ 한국인의 「취업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이제 만약 일자리가 두 군데 있어서 그중 하나는 월급은 좀 박하나 사람들이 대단히 우러러 보는 자리이고, 또 하나는 월급은 대단히 좋으나 사람들이 덜 우러러 보는 자리라 한다면, 만약에 직장을 택하시게 되었을 경우 어느 자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7>

직업관

人口層	應答	우러러 보는 자리	돈 많이 주는 자리	無 應 答	計	N
農 民		72.16	27.84	0.00	100.00	352
企 業 人		64.75	34.87	0.38	100.00	261
教 授		67.35	29.59	2.81	100.00	392

자료: 洪承稷, (1969) p. 100.

한국인은 돈 많이 주는 자리보다는 우러러 보는 자리를 택하겠다고 한다. 응답의 백분율을 보면 농민의 72.16%, 기업인이 64.75%, 교수가 67.35%로서 각기 우러러 보는 자리로 가겠다고 한다. 이와같은 사고방식이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는 바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잘것없는 금전적 보수를 받고 있으나 그래도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일정한 직장을 지키려고 생각하는 신분과 체면관념을 버리고 머리를 돌려서 금전적 보수가 보다 많은 기업과 노동같은 방면에 나섰더라면 자신도 생활이 윤택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직장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까지 발전했을지도 모른다.

37) 洪承稷, op. cit., pp. 93~109.

38) 羅看采, (1983) "現代韓國社會에 있어서 經濟價値觀의 構造分析", 高麗大 社會學硏究會, 高麗社會學論集, 1 輯, pp. 119~147.

39) 洪承稷, op. cit., p. 100.

최신덕은 여대생들의 졸업후 직업관을 조사하여 기존의 연구와 비교한 바 있다.⁴⁰⁾

〈표 8〉

졸업후 희망

	'66	'67	'68	'71	'79
결 혼	5.9	8.3	8.3	3.4	4.7
취 업	71.9	66.6	61.7	74.2	77.2
학 업 계 속	14.8	14.7	14.3	8.3	10.5
가 사 종 사	0.7	0.6	0.6	7.0	1.8

자료: ① 68년도 이전 것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지도부 1968, 학생 생활연구에 의함

② 이효재, 이동원(1971), p. 17 ③ 표경희, (1979), p. 80을 재구성한 것임

위의 표에 의하면 1966년 조사에서는 졸업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71.91%가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이 취업을 원하는 비율은 '67년도에는 66.8%, '68년도에는 61.7%로 떨어지다가 71년에 이르러 74.2%로 상승하고 있으며 79년 조사에 의하면 77.2%에 이른다. 이것은 여성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점차 변화하고 취업에 적극성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대생들의 직업관에 대한 가치관의 이러한 변화추세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남성의 가치관과, 여성내에서의 연령에 따른 취업관의 차이로 인하여 집단간의 가치갈등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B. 近代化觀

우리 국민들은 近代化는 어떠한가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近代化가 가지는 의미의 多樣性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1966년 홍승직의 조사에 따르면⁴¹⁾ 우리나라 지식인들(교수와 언론인들)은 工業化내지 產業化를 近代化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29.24%였으며,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이 近代化라 생각하는 사람이 22.91%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약 52%는 경제적 생활수준의 발전을 근대화라 보고있다. 이러한 경향은 5년 후 이영호의 조사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그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의 68%가 <경제성장> 카테고리에 속하는 응답(경제성장, 수출증가, 소득증대, 공업화, 건설, 농촌근대화, 고속도로, 고가도로, 고층건물 등)이었다.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생각할때 생산하고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분배의 측면(복지사업, 실업자 구제, 균형성장 등)을 근대화라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겨우 2%에 불과하였다. 또 근대화를 정치적 측면의 근대화로 응답한 사람은 홍승직의 조사에서는 전체의 13.4%, 이영호의 조사에서는 전체의 2%에 불과하였으며, 사회적 측면(국민교육수준의 향상, 합리화, 도시화 등)의 응답자도 두 조사에서 모두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암시하는 것은 근대화를 주도한 계층이나 일반 사회성원들 모두가 경제적 측면 이외의 근대화를 생각지 않았으며, 특히 근대화를 모든 측면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보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부터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문제들(분배의 문제, 오염, 지나친 인구집중, 노동쟁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모두 경제제일주의적 근대화의 결과라 할 수 있다.

40) 崔信德, (1975) "이혼 여성의 결혼관 및 직업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청년연구 제 3집, pp. 123~168.

41) 洪承稷, (1967) 知識人과 近代化: 韓國人의 態度調査, 高麗大 社會調査 研究所, pp. 31~33.

42) 李永鎬, op. cit., pp. 44-49

C. 경제가치관의 전통성과 근대성

경제가치관의 전통성과 근대성을 조사한 것으로는 나간채의 연구가 있다.⁴³⁾ 그는 경제가치관을 근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을 통하여 細分하였다. 전통적인 것에는 運命志向性, 情誼的, 道德志向的, 學德志向性 등이 속하며, 近代的인 경제가치관은 改革的—成功志向性, 誇示的—拜金主義, 合理的—內部志向性으로 分類되었다.

이렇게 細分된 척도들은 각각의 가치 지향들이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별 척도점수가 계산되었다. 고려된 집단은 연령별, 수입별, 교육별, 직업(직위)별 집단들이었다.

전통적 경제가치관의 집단에 따른 변량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래의 <표 9>이다.

<표 9> 變數에 따른 尺度點數의 變量分析：傳統的 經濟價值觀

數	[N]	運命志向性	情誼的 道德志向性	學德志向性
		標準點數의 平均値	標準點數의 平均値	標準點數의 平均値
연령				
~ 25 (세)	[177]	-.07	.19	-.40
26 ~ 35	[306]	-.03	.06	.12
36 ~ 45	[167]	.08	-.24	.15
46 ~	[113]	.15	-.17	.11
有意度 檢證	[763]	N.S.	P.<.01	P.<.01
월평균 수입				
10만원 미만	[146]	-.15	.20	-.38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504]	.01	-.03	.08
30만원 이상	[126]	.16	-.13	.14
有意度 檢證	[776]	P.<.05	P.<.01	P.<.01
교육 정도				
무학 ~ 중학교 졸업	[13]	.00	.10	-.21
고등학교 입학 ~ 졸업	[418]	-.05	.03	-.04
초급대학(2년제) 졸업 이상	[323]	.07	-.06	.07
有意度 檢證	[772]	N.S.	N.S.	P.<.05
직업 (직위)				
고급공무원	[86]	.12	-.15	.23
하급공무원	[524]	.00	-.07	.10
기능공	[153]	-.07	-.29	-.45
有意度 檢證	[763]	N.S.	P.<.01	P.<.01

자료 : 羅看采, (1983) p. 142.

먼저 운명지향성을 보면 네 집단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월평균 수입이다. 월평균 수입에 있어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운명지향성에 대한 選好度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情誼的—道德志向性的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변수는 연령, 수입, 직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情誼的—道德志向性 性向은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높을수록, 기능공보다는 공무원집단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에서 情誼的—道德志向性的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學德志向性을 살펴보면, 統計的으로 有意味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변수에는 연령, 수입, 교육, 직업집단,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 수입이 낮을수록,

43) 羅看采, op. cit., 119~147.

그리고 공무원보다는 기능공 집단에서 이 가치가 현저하게 중요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학문과 학덕지향성을 수단가치로 파악한다면 이 경우 아마도 기능공으로서 야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향학열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제 근대적 경제가치관을 分析해 보자. 그 결과가 <표 10>이다.

<표 10> 變數에 따른 尺度點數의 變量分析: 近代的 經濟價值觀

變數	數 [N]	改革的 成功志向性 誇示의 拜金主義 合理的 内部志向性		
		표준점수의 평균치	표준점수의 평균치	표준점수의 평균치
연령				
~ 25(세)	[177]	.08	-.02	.09
26 ~ 35	[306]	-.23	-.03	.04
36 ~ 45	[167]	.15	.04	-.07
46 ~	[113]	.30	.07	-.24
有意度 檢證	[763]	P.<.01	N.S.	P.<.01
월평균 수입				
10만원 미달	[146]	.03	-.10	.11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달	[504]	-.04	.03	.01
30만원 이상	[126]	.13	.01	-.19
有意度 檢證	[776]	N.S.	N.S.	P.<.01
교육 정도				
무학 ~ 중학교 졸업	[31]	.21	-.04	-.17
고등학교 입학 ~ 졸업	[418]	-.02	-.01	-.02
초급대학(2년제) 졸업 이상	[323]	-.00	.01	.03
有意度 檢證	[772]	N.S.	N.S.	N.S.
직업 (직위)				
고급 공무원	[86]	.09	.06	-.13
하급 공무원	[524]	-.05	.01	-.01
기능공	[153]	.13	-.03	.11
有意度 檢證	[763]	N.S.	N.S.	P.<.05

자료: 羅看采, (1983) p. 145.

우선 改革的 成功志向性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령집단 뿐이다. 연령집단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개혁적 성공지향성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고, 비교적 젊은층에서 이 가치 지향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과시적 배금주의 가치유형이다. 이 유형은 네 집단중 어느 집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끝으로 合理的 一内部志向性을 보자. 이 價値志向은 연령, 월평균 수입, 직업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 가치유형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능공 집단보다는 공무원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分析結果를 綜合해 보면 운명지향성과 학덕지향성은 공무원 집단보다도 기능공 집단에서 선호도가 더 높았으며, 정의적 도덕지향성, 개혁적 성공지향성, 그리고 合理的 内部志向性은 공무원 집단에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 교육, 수입집단은 一貫된 가치지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價値觀의 混在狀態로 規定되는 현대 한국사회의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社會的 價値觀

本 研究에서 社會的 價値觀이라는 개념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 가치관이나 경제적 가치관을 제외한 부문의 가치관 연구에 관한 것이다. 유교적가치관, 가족가치관이나 교육가치관, 법의식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가족가치관과 법의식에 대한 것만을 취급하고자 한다.

A. 家族價値觀

가족가치관을 나타내는 자료로는 결혼관, 가족형태, 자녀수 등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으나 여기서는 이 세가지 가치관에 국한시켜 가족가치관의 변화 및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결혼관

결혼관에 대한 研究로는 최재석의⁴⁴⁾ 도시·농촌주민의 비교연구와 유시중의⁴⁵⁾ 한국 대학생에 대한 조사연구와 한남제의⁴⁶⁾ 도시주민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가 있다.

먼저 최재석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것이 <표 11>이다. 여기서 사용된 질문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허락치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였다.

<표 11> 결혼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허락치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아 파 트	농 촌 부 락
결혼을 단념 (부모의견 존중)	40.0	61.2
부모에 반대하여 결혼	51.7	27.2
정사한다.	6.2	8.5
기타	2.1	1.2
계	100.0	100.0

자료 :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p. 381.

위의 표를 보면 결혼단념이 농촌이 61.2%, 도시가 40.0%이며, 부모에 반대하여 결혼 하겠다는 응답자가 농촌은 29.2% 도시는 51.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 사회에 있어 도시와 농촌주민의 가치관의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농촌지역 주민이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재석의 이외의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시중의 대학생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결혼관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바 있다. 그의 연구 중 「배우자 선정 방법」과 「배우자의 선정주체」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12>와 <표 13>이다.

<표 12>

配偶者の 選定方法

應答者	男子大學生	女子大學生	計
仲 媒 結 婚	5.3 %	4.0 %	4.7 %
仲 媒 · 戀 愛 結 婚	57.3	66.7	62.0
戀 愛 結 婚	37.4	27.3	33.3
計	100.0 (300)	100.0 (300)	100.0 (600)

자료 : 柳時中, (1977) p. 327.

44) 崔在錫, (1975) 韓國家族研究, 民衆書館, pp. 337-432

45) 柳時中, (1977) "韓國大學生의 結婚觀 : 그들의 意識과 實際", 崔文煥 博士 記念論文集, pp. 323-345.

46) 韓南濟, (1973) "韓國都市 住民의 結婚觀", 女性問題研究, 3輯, pp. 57-78.

〈표 13〉

配偶者選定の主體

決定의 主體	應答者		計
	男 學 生	女 學 生	
父母가 決定	0.3	0.0	0.2
父母 決定後 本人 同意	7.7	23.0	15.3
本人 決定後 本人 同意	72.7	68.7	70.7
本人 決定	19.0	8.0	13.5
不明	0.3	0.3	0.3
計	100.0 (300)	100.0 (300)	100.0 (600)

자료 : 柳時中, (1977) p. 328.

위의 〈표 12〉를 보면 여자대학생 중 57.3%의 수는 仲媒·戀愛結婚을 바라고 있으나 남학생의 62%에 비한다면 그 수가 적고 연애결혼에서 남자대학생의 37.8%가 이를 택하려고 하는 데 비하여 여자대학생은 29.3%로서 남자대학생에 비하여 그 수가 적다.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의 선정주체」에서도 동일하다. 〈표 12〉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 本人 決定後 父母同意가 72.7%이고 父母決定後 本人同意가 7.7%인데 비하여 여학생의 경우는 68.7%와 23.0%이다. 특히 本人決定의 경우는 남학생 19.0%, 여학생 8.0%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 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⁴⁷⁾

한편 한남제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男女응답자(즉 부모) 사이에는 차이가 거의 없으나 딸과 아들의 배우자에 대한 요구조건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딸의 배우자(사위)에게는 직업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식의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학력·가문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또 상층직업 집단 일수록 학력을 중요시하고 하층직업집단 일수록 성품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족형태

최재석은 우리나라의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기 위하여 1962년에 조사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⁴⁸⁾ 이때 사용된 질문은 「결혼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것과 따로 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였으며, 이 결과가 〈표 14〉이다.

〈표 14〉

결혼후 가족형태

	아 파 트	농 촌 부 락
같이 사는 것	24.1	76.3
따로 사는 것	73.8	21.8
기 타	2.1	1.8
계	100.0	100.0

자료 : 崔在錫, (1975) p. 375.

위의 표에 나타난 있는 바와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도시거주자는 24.1%, 농촌거주자는 76.4%로 나타났으며, 따로 사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도시거주자 중

47) 최재석의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의 선정주체에 있어 농촌이 도시보다 더 전통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崔在錫, 韓國家族研究, op. cit., p. 371.)

48) 崔在錫, ibid., p. 375.

73.8%, 농촌거주자 중에서는 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벌써 20년전에 도시화와 산업화의 결과가 한국의 이상적 가족형태인 직계 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1년 이정덕의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⁴⁹⁾ 전체 응답자 중 실제로 핵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68.7%로 나타났으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 가족형태”에서는 핵가족이 56.5%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년전의 최재석의 연구와 비교할 때 핵가족을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 더 줄었다는 결과가 된다. 두 연구결과의 차이가 있게 된 원인은 중요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으나 그 차이의 원인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단계이다.

3) 자녀의 수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측면에서 볼 때 男兒選好度는 거의 절대적 중요성을 지녔다.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男兒選好度도 많이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자식의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가족화의 시대에 있어 자녀의 수가 가족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 할 때 “이상적인 자녀의 수”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래의 <표 15>는 희망 자녀수를 연도별, 지역별로 본 것이다.⁵⁰⁾

<표 15> 우리나라의 希望子女 數

Country	Korea								U. S. A ⁸⁾ Taiwan ⁹⁾		
	Year	1964		1965			1966				
Area	Rural ¹⁾	Whole ²⁾ Country	Seoul ³⁾	Whole ⁴⁾ Country	Rural ⁴⁾	Middle ⁵⁾ town	Urban ⁴⁾	Whole ⁶⁾ Country	Seoul ⁷⁾		
Wanted No. of Children	4.6	4.1	3.3	3.9	4.1	3.6	3.4	3.9	2.8	3.6	3.4
Son	-	2.5	2.1	2.4	-	-	-	2.4	1.8	-	-
Claughter	-	1.6	1.2	1.5	-	-	-	1.5	1.0	-	-

1) W. K. Koh, (1959) Study on Korean Rural Family.

2) 4) and 6), PPEK, (1964, 1965, 1966) Annual Report of Family Planning.

3) E. H. Kwon, (June 1965) The Results and Findings of the Pre-treatment Status Survey, The School of Public Health.

5) H. Y. Lee, (1965) The Differential Fertility Survey in a Korean Middle-town, Ichon-cup.

7) IPP, (1966) Survey on Fertility and Migration of Seoul City.

8) Judith Blake, (1965) Ideal Family Size among White Americans, University of California.

9) R. Freedman, (1965) Population Trends and Family Planning in Taiwan, University of Michigan.

이 표를 통하여 지적할 만한 사실은 희망자녀수가 年次的으로 줄어왔고 이를 市郡部別로 볼 때 市部의 수치가 郡部의 수치보다 낮다는 사실이다. 1966년의 3.9명을 性別로 男兒의 女兒에 대한 비가 2.4 : 1.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정덕의 연구결과를 보면⁵¹⁾ 총응답자 중 46.0%가 2명의 아들을 원하고 있으며, 1명만을 원하는 경우도 29.8%에 이르고 있다. 딸의 경우는 1명을 원하는 사람이 두드러지게 많

49) 李貞德, (1981) “우리나라 理想的 家族觀에 對한 新旧世代的 價値觀 比較研究(I) : 서울시를 중심으로”, 省谷論叢, 12輯, pp. 82~126.

50) 尹鍾周, (1967) “韓國家族의 男兒에 對한 選好度 問題”, 人口問題論集, 4輯, pp. 19~29.

51) 李貞德, op. cit., pp. 92~93.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응답자의 性別에 따라 分析해 보면, 아들 2명을 원하는 사람은 남성이 54.8%, 여성이 38.7%이며, 1명의 아들을 원하는 사람은 남성이 24.7%이며 여성이 34.2%로 나타났다. 딸 1명을 원하는 사람은 남성이 63.9%, 여성이 54.3%이다. 이것을 세대 별로 보면 1명의 딸을 원하는 사람은 구세대가 53.7%, 신세대가 61.9%로 나타나 신세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要約 및 結論

본고의 목표는 한국인의 가치지향의 변화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1. 가치관의 개념정의 및 분석방법을 고찰하고, 2. 가치관의 영역을 정치가치관, 경제가치관, 가족가치관으로 分類하였으며 3. 기존의 가치관 연구들을 통하여 이들 가치관들이 산업화 이후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는가, 4. 또 가능하다면 이들 가치관이 집단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정치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한 지표로서 사용한 것은 官尊民卑觀, 對美國觀, 指導者觀, 美國과 日本을 보는 눈, 民主主義 등 5 가지였다.

관존민비관의 경우 기업인이나 교수집단의 경우보다 농민집단이 훨씬 더 강하였으며, 對美國觀에서는 농민, 기업인, 교수들이 대체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관의 경우 세 집단이 모두 「애국·애족」을 가장 강조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정직과 공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을 보는 눈」에 있어서는 모든 응답자들이 미국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것으로 본 반면 일본에 대하여서는 우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일반국민의 경우보다 더 심하였다. 「민주주의의 뜻」에 대한 경우 일반국민이나 국회의원 모두가 민주주의를 자유와 同一視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택한 變數는 직업관, 근대화관, 경제가치관이 전통성과 근대성이었다.

직업관의 경우 농민, 지식인, 기업인 모두가 금전적 보수보다는 사회적 존경이나 명예를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세 집단중 농민이 이러한 경향을 더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자대학생들의 취업희망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대화관의 경우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근대화를 경제적 발전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가치관의 전통성과 근대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가치관은 좀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정치가치관과 경제가치관은 변화의 방향이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비하여 가족가치관은 집단간에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의 결혼관이 더 전통적이며 도시주민보다는 농촌주민이 더 전통적이면서 신세대보다는 구세대가 더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가족가치관은 대체로 전통적인 것으로부터 근대적인 것으로의 변화방향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연구가 갖는 몇가지 한계와 가치관 연구의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본 研究는 기존의 경험적 조사를 토대로한 문헌 연구이다. 따라서 그 연구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결점들이 본 연구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런 결점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가치관, 태도, 의식구조 등의 개념들을 구별없

이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개념의 혼란 뿐 아니라 척도의 구성에서도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결국 가치지향의 변화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論者의 견해로는 한국 사회의 아노미현상이 二重的 價値의 충돌에서 뿐만 아니라 價値와 태도의 괴리에도 있다고 보는 바, 명백한 개념정의가 결여된 조사로는 이러한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둘째, 지금까지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치관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치영역별로 볼 때는 일부의 영역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따라서 가치영역별로 가치지향의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셋째, 앞에서 논의한 것과 관련하여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이다. 경험적 조사의 생명인 척도에 대한 검증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넷째, 동일 척도를 적용시켜 가치지향의 변화를 밝혀보고자한 통시적 조사(longitudinal survey)는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동일가치 영역에 대한 조사도 항상 상이한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어떤 척도를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가치지향의 변화에 대한 研究들은 이러한 점에서 좀 더 세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